

지역 매 아리

고창군, 전시 상황전파 체계 훈련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2018년도 을지연습 유예에 따라 비상사태를 가정한 상황전파 체계 가동 훈련을 29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평화분위기 속에서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시 국민 생활 안전, 정부기능유지, 군사작전 지원 등 목적으로 한 국가 위기관리 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군은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비상대비정보시스템 활용 능력 배양을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했다.

또한, 상위기관과 연계한 복합적인 상황조치 도상훈련을 통해 각종 비상사태 시 각 부서간 협업체계 점검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등 충무계획을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유기상 군수는 "외부 전문 자문인력의 도움을 받아 기존 비상대비 계획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아가면서 반복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양봉기자재 지원 확대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양봉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4500만 원을 확보해, 양봉기자재인 소초광 2만 5000개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초광은 꿀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판으로 꿀벌은 소초광 위에 밀랍으로 집을 지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든다.

이 소초광에 질병 바이러스가 잠복하면 봉군폐사가 증가하고 항생제 등 약품사용으로 봉산물이 오염되므로 최소 2년마다 교체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농가에 2억1800만 원을 투자, 화분 및 벌통, 화분채취기, 채밀기 등 4종의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초광 등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봄 이상기온 영향으로 인한 아카시아 꽃대 형성부실 등 작황불량과 만성꿀벌마비병에 의한 꿀벌폐사로 꿀생산량이 전년 대비 10~20%에 그쳐 실의에 빠져있는 양봉농가 사육의욕 고취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

해수부, 고창 동리국악당서 ‘연안발전포럼’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9일부터 30일까지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함께하는 연안, 미래의 연안(부제: 해안사구를 통해 보는 연안관리)’이라는 주제로 ‘제8회 연안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고창군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연안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연안방재학회 등 다수 기관의 관계자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이 포럼은 연안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지속가능한 연안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모이는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2011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왔다. 올해 포럼에서는 해안사구가 유명한 고창군의 특성을 살려, 해안사구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연안공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중

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포럼 첫 날에는 해양수산부 차관과 유기상 고창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시대의 해안관리(유근배 서울대 교수)'라는 주제의 기조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연안관리법 일부 조항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연안관리법 변화와 관리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추진방향 ▲연안보전관리 40 정책 ▲고창군 연안 현안과 정책 ▲서남해 지역의 해안사구와 해수욕장 복원 사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30일에는 고창군의 연안을 답사하며 연안관리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랑사르 곶갯벌센터를 방문하여 곶갯벌 생태계 복원사

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후 서해안비람공원을 방문하여 전면에 위치한 해안사구를 관찰하고, 각종 연안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구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연안 공간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정구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생활의 터전이 되어주는 연안을 더욱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포럼을 통해 우리 연안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사업과 갯벌식물원 조성,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총력'

환경개선사업 수요 조사 실시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1기업 1담당 기업에 고충처리제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도 대표적인 기업

친화적인 사업 중 하나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해 시는 2019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19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 대상은 종업원 수가 200인 미만인 지역 내 중소기업 제조업체이다. 사업은 크게 ▲북

지편익 ▲근로환경 개선 2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북지편익은 기숙사와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등 직원들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또 근로환경 개선사업의 주요 대상은 집진시설이나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에는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하는데 근로환경 개선은 최고 2,000만원, 북지편익은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도 30호선 부등침하 심각... 안전 위협 대책마련 시급

김제에서 부안을 거쳐 격포 등 번산반도로 이어지는 국도 30호선이 부등침하(不等沈下 differential settlement)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익산국토관리청은 국도 30호선 '하서~부안' 4차선 13.9km를 지난 1998년 착공해 총 1393억원(공사비 1235억원, 용지비 158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5월 개통했으며 두포교(L=270m) 등 교량 16개소(875m)와 봉황교차로 등 입체교차로 7개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구간은 과거 바다였던 지역을 통과하는 등 연약 지반 공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개통 후 자반침하로 곳곳이 가라

앉고 노면이 울퉁불퉁해 최악의 도로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개통 이후 수십 차례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했지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고 다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국도 30호선은 김제~부안 전 구간에서 부등침하가 심각해 우천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3시 30분경에는 부안에서 김제로 향하던 고모(42)씨가 곡산구간을 통과하다 부등침하로 돼 물이 고인 곳에서 미끄러져 승용차를 페차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해당 구간에서 김모(38)씨가 김제로 향하던 중 부등침하로 돼 물이 고인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과 부딪힐 뻔 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처럼 국도 30호선에서는 부등침하 등 교통안전에 대한 표시가 전무해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청의 부등침하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 및 특별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을 한 주민은 "비나 눈이 오는 등 기상상황이 안 좋을 때는 더욱 힘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 산하 국토유지사무소 관계자는 "국도 30호선 김제~부안 구간은 연약 지반이라 침하한 곳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점검을 실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위도 면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순백색의 위도상사화.

‘고슴도치 섬, 하얀 상사화로 물들다’

부안 위도상사화 이번 주말 만개 관광객 유혹

고슴도치 섬인 부안군 위도 면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순백색의 위도상사화 대단위 군락지가 꽃망울을 터뜨려 관광객의 손길을 유혹하고 있다.

위도해수욕장 주변의 군락지의 위도상사화는 꽃대 봉우리가 이번 주말이면 최대 만개할 것으로 예상돼 주변 경관을 화려하게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 여행 꽃구경을 생각한다면 힐링의 섬 위도에서 위도상사화를 구경하는 계획도 괜찮을 것 같다.

위도 면과 기관사화단체는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일대와 전막마을

일원에 위도상사화 군락지를 조성해 위도만의 특색있는 지역관광 활성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써 왔다. 위도만의 순백색의 위도상사화 군락지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자연경관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춘수 위도면장은 "흰색 상사화는 아름답고 화려함을 뽐내는 꽃으로 개화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이번 주말 많은 관광객이 힐링의 섬 위도를 찾아 위도만의 특색있는 흰색 상사화를 감상, 추억을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지역산림조합은 산림정책의 중요한 파트너”

김재현 산림청장 정읍 방문

김재현 산림청장이 지난 28일 정읍산림조합(조합장 김민영)을 방문했다.

이날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과장 안병기, 산림조합중앙회 유동지원부(부장 이용범),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규순), 정읍시 산림복지과(과장 강재원)를 비롯해 여러 임업 관련자들이 함께 참석해 마지막까지 산림정책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와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정읍시장(시장 유진섭)과 복지환경국장(국장 김형근)도 환영 인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유진섭 시장은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의 국비 90억 예산변영 요청과 산림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고, 녹색정읍을 만드는 데 산림청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하며, 지자체에서도 시·군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히 임해

주기를 당부하며 훈훈한 미담들을 나눴다.

김 청장은 "지역산림조합은 산림정책 추진에 중요한 파트너임에도 취임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자주 찾지 못해 아쉽고, 그 중 정읍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중에 으뜸으로 꼽는다는데 한번 꼭 와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금년 1월에 개장한 로컬푸드 임산물유통센터를 시찰하며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반구축과 조합원과 임업인 중심의 사회적 경제지원으로 산림산업 활로 모색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역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9일까지 실시한 '임업용기계 A/S행사'도 둘러보면서 임업인들을 위한 환원사업에도 관심을 보이며, 정읍산림조합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A/S행사는 금년들어 11번째 계속 이어져 올해까지 4,300여대를 무상 수리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bottles of wine on the left. On the right, there are several gift sets of wine, each with a price tag. The text in the center and right describes the wine's quality, mentioning it is made from wild ginseng and mulberry.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nd a website URL.